

사진으로 보는 아·태지역 에이즈 국제회의

글_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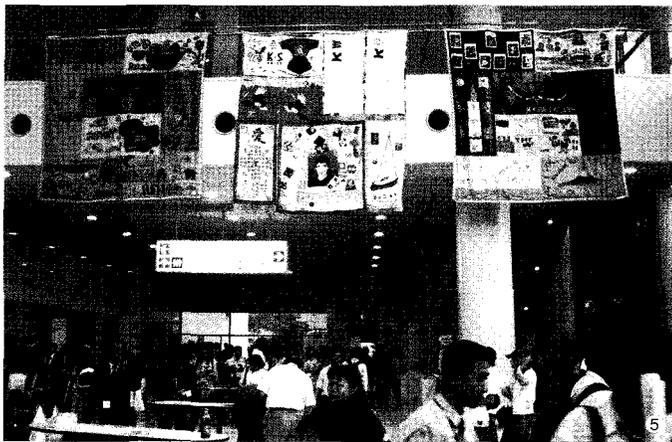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이즈 상황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제7회 아·태지역 에이즈 국제회의(ICAAP : The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 and the Pacific)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아·태지역 에이즈 국제회의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에이즈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자”를 회의



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 회의는 지역사회, 감염인 등 관련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회, 각국 NGO 홍보부스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ICAAP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첫째,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항바이러스제제 공급에 대한 이슈였다.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와 UNAIDS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나라들의 예산 분배에 대한 논의가 회의장 이곳저곳에서 펼쳐졌다. 둘째는, 지난 해 열렸던 방콕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항바이러스제제의 가격인하에 대하여 격렬했던 집회의 결과 타인지, 눈에 띄게 줄어든 제약회사의 홍보부스였다. 셋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마약 사용자 그룹에서의 에이즈 신규 발생률 증가에 따른 대책과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8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회의는 2007년 스리랑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①: 개회식 무대에 선 HIV 감염인들
- ②: 아시아·태평양지역 성매매종사자 네트워크 홍보부스
- ③: ABC QUILTS JAPAN 홍보부스
- ④: 대만의 에이즈 NGO협회 홍보부스
- ⑤: 에이즈 관련 전시회가 열린 국제전시장
- ⑥: 개회식장 전경
- ⑦: 콘돔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 ⑧: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콘돔 사용법 강의

International Campaign on AIDS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ICAAP

